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발전방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곽 병 구**

항공기 제조 관련 우수업체인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는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정책에 호응하여 지난 9월 1일 단일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외 유명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자산 및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한편 법인 설립 실무기구로서 통합 사무국을 구성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기산업계 개편을 배경으로 우리 협회의 위상과 진로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듯하여 이 기회에 단일법인 발족의 의의와 협회가 나아갈 방향 및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 단일법인화의 추진과 전망

지난 50년대에 주한 미군기 수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그후 부품의 하도급 생산을 거쳐 조립생산과 면허제조 등의 과정을 지나 현재는 독자 설계, 개발 및 제조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간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생산체제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했고 개발능력의 축적도 미진한 상태여서 업계의 구조조정이

큰 과제로 되어 있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이미 지난 97년에도 우리협회를 중심으로 기체4사간 합의하에 추진되었던 단일공동법인 설립이 정부지분 참여문제로 중단되었으나 금번 정부에 의한 5대재벌 구조조정계획에 힘입어 드디어 단일법인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항공우주산업은 국토방위의 기간산업이며 고도의 첨단 기술 집약산업인 동시에 타산업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가 크고 게다가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자금의 회임기간이 길며 리스크 또한 타산업에 비해 높은 등의 공공재 산업적 특성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들도 항공우주산업만은 국가의 각별한 자금지원 외에 업계의 구조조정과 그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새로 설립될 단일법인은 상호를 (가칭)한국항공우주산업(주)로 정하고 초대사장에 상공부차관과 교통부장관을 역임한 임인택 전장관을 내정하였다. 앞으로 12월중에 3개사의 자산실사 평가 합의와 채권은행단과의 출자전환 협의 등 주

요한 고비를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기체 3시간 통합계약 체결로 이어져 기본골격이 완성될 것이다. 이어 내년초에 각사의 사업을 분리하며 단일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기존사와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3~4월부터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새로 발족하는 법인은 항공기와 인공위성, 로켓 등의 개발에서 최종 조립 및 시험 등을 맡게된다. 당면한 주요 사업으로는 KF-16, KT-1, KT-2와 KLH, KMH 등 헬기 사업외에 B717 주날개 제조와 중형 항공기 개발 및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단일법인은 우선 분산되었던 역량의 규합으로 자금, 시설,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제품면에서도 훈련기, 경전투기, 헬기 등을 자체 생산하여 2010년까지 세계10위권 항공산업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단일공동법인의 발족은 과잉투자설비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새로운 체계종합기능(System Integration)구축이라는 산업정책적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 **협회의 위상과 진로**

우리협회는 지난 1992년 9월 5일 국내

의 항공기 및 인공위성 제조에 관련한 기업의 권익 단체로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발족했다. 그후 약 6년여에 걸쳐 업계와 정부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업계의 권익보호와 회원의 지위향상에 노력한 결과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공인되는 산업계 대표기관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40개사의 정회원사와 10개 기관의 명예회원을 두고 2부 4과의 사무국 기구를 활용하여 창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 공히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해가고 있다. 특히 국책사업인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다목적 실용 위성 개발사업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정부와 업계의 교량적 역할과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또한 단일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는 우리협회와 적극적 지원을 보내주신 회원사 여러분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서울에어쇼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명성을 얻었고 자체 사업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을 뿐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해마다 정리 발간함으로써 업계와 일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이제까지의 양적, 외적성장을 기반으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회원사 지원과 협회운영 재정의 안정을 기할수 있는 공익적 신규 사업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특히 단일공동법인 설립에 따른 협회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은 현안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사실 우리협회는 제한된 인력과 시간을 최종 조립을 지향하는 기체4시간의 상반된 이해관계하에서 원만한 공감대 조성을 위한 업무에 소모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적 정책개발과 부품·소재 산업 분야 지원 등의 업무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 차제에 단일공동법인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이런일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품·소재분야 회원사들을 위한 권익증진과 지원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동시에 저변산업개발에도 주력하게 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신생 단일법인은 최종조립 등 SI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업체로 업계 최정상위 지위에 서겠지만 우리협회는 이 단일법인과 여타 부품 및 소재 등 저변을 구성하는 다수 업체와의 긴밀하고도 공정한 계열화 구축을 위한 역할에 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산업계의 당면 과제인 KFP 후속물량 창출과 산만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지원자금을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지원요령으로 결집하면서 지원자금 규모도 확대해 가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일공동법인은 물론 엔진·부품·소재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협회의 설립목적인 산업계 공동의 권익대변 기관으로서, 정부인가 단체로서 산업계 의견수렴 및 대정부건의와 정부위임 업무수행 등을 통해 정부와 산업계의 교량적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은 국제화 성격이 강하고 국제적 제휴가 필수적인 산업인바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의 중심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명실공히 업계의 첨병이요 향도이며 구심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계는 결국 하나의 최종조립 등 거대체계종합회사와 다수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부품·소재 업체로 형성될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협회도 1~2개의 거대체계종합회사와 수백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부품·소재 업체를 망라하여 자국항공우주산업계의 구심점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AIAA(미국), SBAC(영국), GIFAS(프랑스), SJAC(일본) 등 선진항공우주국들의 협회가 수행하는 역할 등을 거울삼아 회원사 이익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물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여 회원사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